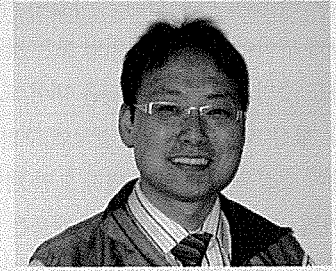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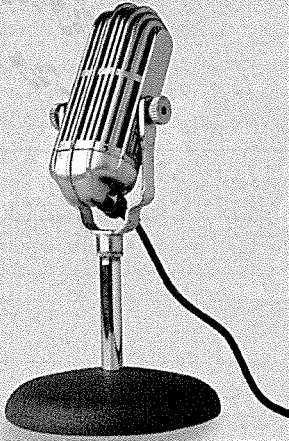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대처방안



| 이경국
매화종합사회복지관 가족복지팀장

서 구 사회에서의 주 5일 근무제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우리는 항상 서구 선진국의 주 5일 근무제를 부러워했고, 우리나라도 어서 주 5일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간다.

욕구가 많으면 된다고 했던가? 결국 작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듣자하니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90%이상의 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를 몸소 체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도입의 특징 또는 패턴은 서구 선진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국민연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소 정략적인 부분이 있었던 국민연금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국민연금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수명이 짧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며, 현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탁 배경에도 이러한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소하는게 제 1과제가 되어 버렸다.

다른 나라에서는 잘도 시행되는 국민연금 제도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대지도 푸대접을 받는 것인지 잠시 주제가 딴 곳으로 돌려졌다 생각하시겠지만 이 글의 주제는 주 5일 근무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의 대응전략도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상황과 무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주말의 욕구해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2006년 7월부터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주 5일근무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학생들도 한 달에 두 번 토요일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이제는 어떻게 일할까의 고민에서 어떻게 쉴까의 고민으로 인간의 욕구는 흐르게 되어 있다.

생각지도 않은 휴일이 하나 더 생겼으니 최악은 하루종일 텔레비전을 보면서 집에 있는 것이고, 최고는 마음만 맞으면 잠시 해외여행 가서 골프라도 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여가생활을 하는 데는 최저의 생활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최저 이상의 생활이라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 쉬는 날은 쉬는 날이기에 생산성이 저하되어 결국 기업의 부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라는 기업적 논리가 결국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이대로 라면 하루를 더 쉬게 되면서 이틀분의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닌가?

그럼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재미나게 이야기 해보자. 결혼한 연봉 3,000만원의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부의 주 5일 근무제 이후의 생활변화 이야기

평범한 심심해씨는 부인 나가자 씨와 결혼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둘 사이 아이 이름은 심하군이다. 직장이 그럭저럭 좋은 직장인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심심해씨는 고민이 많다. 5일동안 피곤한 몸을 편안한 소파에 누워 잠만 자고 싶은데, 나가자씨는 토요일에는 가족끼리 외식 또는 1박 2일 여행이라도 가자고 한다. 아들 심하군은 아버지에게 인라인스케이트를 사서 같이 노는게 소원이라고 한다. 연봉 3,000의 급여야 뻘하지 않은가? 대출이자에, 자동차 유지비에, 아이 사교육비에 월급이 통장에 들어와도 좋을 것 하나 없어 세상 사는게 심심한 심심해씨에게는 주 5일 근무는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제도다. 이해 못해주는 마누라에 철없는 아들이 버티고 있는 주말은 그야말로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심해씨도 청운의 꿈이 있어 무엇인가 배우고 싶고, 직장에서도 뒤쳐지는 듯한데, 이참에 주말에 컴퓨터라도 잡고 앉아 그래픽 디자인이라도 배워야 하는데, 역시나 혼자서는 무리다.

부인 나가자씨도 마찬가지다. 매일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과 그나마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연애할때는 이리저리 잘도 데리고 다니던 남편이 이제는 마당에도 데리고 나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서운하던 차에 토, 일요일에는 남편과 같이 데이트할 꿈을 꾸고 있고, 가족과 돈독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꿈이다. 아이는 어떡한가? 아빠 엄마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만 역시 아이는 아이다. 이것저것 사달라면 사줄 분이 아님에도 여전히 주말은 아빠 엄마의 주머니를 정당하게 열 수 있는 황금의 시간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세사람의 주말의 욕구는 과연 돈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인가? 방법은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관은 보통 주 5일에서 6일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심심해씨가 가족의 욕구가 절정에 다다른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무리 좋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도 별 수 없는 것이다.

자원봉사의 빈곤도, 프로그램의 빈곤도 해결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의 기회

사회복지사도 사람이라, 박봉에 다른 사람들의 주 5일근무제에 따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희생만 할 수는 없는 노릇... 그렇다고 여전히 주 5일 개방을 목표로 한다면 이 또한 사회복지관의 설립, 운영, 존재의 이유가 약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은 이러한 주 5일 근무제도 하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관은 지금 특별할 것이 없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동사무소,

문화센터 심지어는 종교시설에서도 진행한다. 그렇다면 주 5일 근무제는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존재의 보편성을 탈피하여, 희소성으로 발전될 수 있다.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할 때 쉰다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버스 운전사들과, 휴가철에 항공기 운항사들도 볼멘소리를 하기는 마찬가지 인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답일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욕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는 학문이고 보면, 주 5일근무제에 넘쳐나는 사람들의 욕구를 위해 복지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히려 평일 프로그램보다 대상도, 프로그램의 내용도 더욱 다양화 될 수 있다.

자원봉사의 빈곤도, 프로그램의 빈곤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말이다. 학생들은 학교다니는 동안 봉사하지 못한 것을 토·일요일에 하려하고, 직장인들은 주말에 자기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며, 분열된 가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용이한 날도 주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냥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사회복지관의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이 안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근무여건 등이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이러한 사회복지관 주말 개방으로 인한 확실한 사회복지사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로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약간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의견이지만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사회복지관 개방은 불가피하며, 이것은 기회이자 사회복지사들의 진정한 존재가치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사회복지관 개방은 불가피하여 이것은 기회이자 사회복지사들의 진정한 존재가치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